

“KT 보유 첨단 ICT로 코로나19 극복 협업”

구현모 대표 브로드밴드 위원 선임

국내서 유일한 브로드밴드 위원
ICT분야 전문성·통찰력 인정받아
“전 세계에 韓 ICT 우수성 전할 것”

구현모 KT 대표가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ICT 대응에 참여하게 됐다.

KT는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브로드밴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은 구현모 대표가 유일하다.

2010년 설립된 브로드밴드위원회는 전 세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산과 디지털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각국 정상 및 정부 관료, 국제기구 관계자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에릭슨, 노바티스 등 글로벌 기업 임원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과 카를로스 슬림 재단의 카를로스 슬림 헬루 이사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KT 구현모 대표를 포함해 총 58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브로드밴드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연결하는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탄력 있는 연결 ▲저렴한 접속 ▲정보와 교육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3대 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KT는 구현모 대표가 34년 동안 KT



구현모 KT 대표.

에서 근무하며 쌓은 통신과 ICT 분야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인정받아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KT는 2018년 브로드밴드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방지(GEPP) 워킹그룹을 이끌며 ICT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방지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 브로드밴드위원회 연차 보고서에 5G 상용화 성과, 기가토피아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출신 짜오 ITU 사무총장은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KT 구현모 대표를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T가 보유한 유무선 네트워크 운용 노하우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ICT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업에 기여하는 한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ICT의 우수성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이엘, eMTC 기반 스마트 원격관제 협력

고객 신뢰도 향상·사업 영역 확장

KT는 지능형 산업용 원격단말장치 제조사 이엘과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이엘 본사에서 ‘eMTC 기반 스마트 원격 관제 사업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이현석 전무, 이엘 안종욱 회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eMTC 통신 기반 스마트 원격 관제 사업 활성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와 이엘은 태양광 스마트 원격관제 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인버터에 이엘의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설치하고 KT의 eMTC 네트워크를 이용해 태양광의 전력량 및 인버터 고장 유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KT는 28일부터 김제, 나주 지역에 eMTC 통신 모듈을 탑재한 태양광 스마트 원격단말의 설치를 시작했으며



계약 체결식에서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이현석 전무(왼쪽)와 이엘 안종욱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전국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관제 사업에 활용되는 이엘의 솔라링은 KT의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KT 파트너스’가 적용돼 KT의 품질 자문과 판로개척 지원을 받은 제품이다. KT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신뢰도 향상과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양사는 향후 보다 정확한 관제로 침수피해 시 사전 예방이 가능한 ▲스마트 하천관리 ▲농업용 배수 펌프장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eMTC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KT, 언택트에 맞춰 새로운 SV활동 강화 (사회적 가치)

지난해 창출 사회적 가치 1조 8709억
삶의 질 향상 부분 전년비 282% ↑

SK텔레콤이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조8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향후 코로나19로 바뀐 언택트(비대면) 사회, 일상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조8709억원의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2018년 1조7270억원 대비 8.3% 증가한 결과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경제 기여, 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SV 창출에 나서왔다.

그 결과,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1조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1475억원으로 627%,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383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다만 환경 공정 영역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비즈니스 사회성과’가 전년 203억 대비 1475억원으로 627% 늘었다. 해당 영역은 ‘삶의 질’, ‘노동’, ‘동반성장’, ‘환경’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 부분의 SV는 전년비 282% 증가한 1618억 원으로 측정됐다. 또 ▲독거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한 응급 안전알림, 우울감 감소 ▲고속도로 실시간 급정거 알림



성동구 70대 어르신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돌봄’을 이용하고 있고 있다. /SK텔레콤

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범죄자 위치 추적 고도화를 통한 검거기간 단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의 성과가 신규 반영됐다.

노동, 동반성장 부분에서 창출한 SV는 각각 242억원, 608억원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한울’ 설립, 2주 80시간 근무제도 정착, 5G·AI 스타트업 발굴, 협력사 기술 개방 등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성과가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재무적 가치와 연동되는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1조6851억원으로 지난해 1조6728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항목을 구성하는 고용, 배당 부분이 각각 11.3%, 1.8% 증가했지만 5G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 감소로 납세 부분이 25.7% 감소했다.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383억원으로 전년 339억원 대비 약 13% 증가했다. 속초·고성 산불, 태풍 현장에 긴급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재난 조기 극복 활동과 기부금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환경 공정 부분 성과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결과에서 환경 공정 부분의 성과는 (-)1045억원으로 전년 (-)950억원 대비 마이너스 규모가 확대됐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를 살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장비 구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은 올해부터 주요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SV 영역을 조사해 사회가 원하는 활동을 적시에 판단하고 전략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반 상승을 위해 5G·AI 등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강화, 융합보안·실시간 관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 언택트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SV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눈 편안한 TV 만들어주세요” 학생 요청에 응답한 LG전자

올레드 TV 구조적 차이·기술 소개

LG전자가 눈이 건강한 TV를 만들어달라는 학생에 올레드 TV 우수성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지난 주기채영 학생을 서울 LG트윈타워에 초대해 LG 올레드 TV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채영 학생이 LG전자에 “LG전자에서 눈이 나빠지지 않는 TV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편지에 응답한 것이다. 기채영 학생은 편지에서 TV 시청을 너무 좋아하지만 블루라이트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될까 걱정된다며, 블루라이트가 나오지 않는 TV를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남겼다.

LG전자는 편지를 받은 후 기채영 학생



올레드TV와 LCD TV 차이를 확인하는 어린이들. /LG전자

생에 올레드 TV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제안하는 답장을 보냈다. 블루라이트를 대폭 줄여 장시간 시청해도 눈이 편안한 LG 올레드 TV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이다.

LG전자는 이 자리에서 기채영 학생에게 백라이트 유무에 따른 LCD TV와 올레드 TV의 구조적 차이, 블루라이트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

수 제작된 안경을 통해 올레드 TV와 LCD TV에서 블루라이트 차이를 직접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LG전자 올레드 TV는 미국 안전인증 기관 UL에서 ‘청색광 저감 디스플레이’로 검증받은 LG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 TÜV 라인란드에서 ‘눈이 편안한 디스플레이’로도 인증 받은 바 있다. 블루라이트 방출량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무해성 기준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만남을 주선한 HE사업본부장 박형세 부사장은 “멋진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고 기채영 학생에게 인사를 전하는 한편 “블루라이트가 적게 나오는 올레드 TV와 같이 눈이 편안한 TV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용 기자 juk@

2.4만 TEU급 컨테이너 2호선 만선 출항

HMM 세계 최대급 산적량 기록

HMM은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 2호선 ‘HMM 오슬로’호가 또다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만선으로 28일 유럽으로 출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호선 ‘HMM 오슬로’호는 지난달 11일 부산항 신항에 입항해 중국 상해, 닝보, 옌톈을 거쳐 27일 싱가포르에 입

항했으며,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의 통상 최대 선적량인 1만9300TEU를 넘는 1만9504TEU를 선적한 만선으로 28일 유럽으로 향했다. 이는 지난 8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 1호선인 ‘HMM 알 헤시라스’호가 선적량 1만9621TEU로 세계 최대 선적량을 기록한데 이어 2호선도 또 다시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HMM은 지난 2018년 정부의 ‘해운재

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조선 3사와 약 3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선박 20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9월까지 대우조선해양 7척, 삼성중공업 5척 등 2만4000TEU급 총 12척과 내년 상반기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만6000TEU급 8척을 순차적으로 인도 받을 계획이며, 이번 2호선 ‘HMM 오슬로’호는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5척 중 첫번째 선박이다. /양성운 기자 ysw@